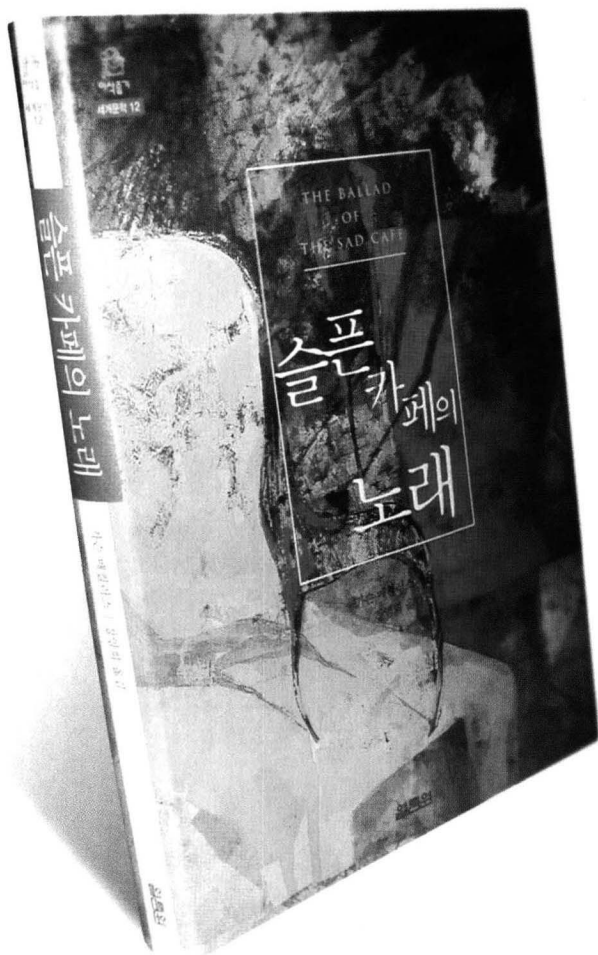


기괴한 자들의 기괴한 사랑 노래



● 이 글을 쓴 김숨은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1998년 <문학동네> 동계문예공모로 등단했다. <느림에 대하여> <중세의 시간> <투견> <새> <제8전사실> 등을 발표했다.

직조기와 저녁도시락, 잠자리, 그리고 다시 직조기가 반복되는 날들을 살아가던 방적공들이 어느 일요일에 카페로 간다. 겨울은 혹독하고, 여름은 작열하는 태양으로 하얗게 불타 오르지만, 변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살고 있는 방적공들이다. 카페에서는 한 거구의 여인이 술을 만들어 팔고 있다. 영혼 속의 숨겨둔 진실과 고통과 기쁨을 불러내는 힘을 가진, 마술 같은 술이다. 방적공들은 이제 직조기와 저녁도시락, 잠자리, 그리고 카페와 직조기가 반복되는 날들을 살아간다. 직조기와 저녁도시락, 잠자리, 그리고 다시 직조기가 반복되는 날들과는 확연히 다른 날들이다. 그러나 어느 날 카페는 문을 닫는다. 거구의 여인은 이제 술을 만들지 않는다. 거구의 여인이 사랑하던 꼽추 남자가 그녀를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거구의 여인이 마술 같은 술을 빚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꼽추 남자를 향한 마술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랑이 떠나면 카페의 시절도 문을 닫아야 한다. 방적공들은 직조기와 저녁도시락, 잠자리, 그리고 다시 직조기가 반복되는 날들로 되돌아온다.

직조기와 저녁도시락, 잠자리, 그리고 다시 직조기와 저녁도시락, 잠자리….

방적공들의 영혼들은 지루함으로 죽어가고 급기야는 폭스펠즈의 고속도로로 내려가 죄수들의 노래를 듣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한다.

그곳에서는 매일 죄수들의 노래가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죄수들은 “단지 이 지방 출신의 흑인 일곱 명과 백인 청년 다섯 명, 언젠가는 죽을 운명의 열두 명의 인간일 뿐이다. 함께 묶여 있는 열두 명의 인간들”이다.

《슬픈 카페의 노래》는 기괴한 사랑 노래다. 기괴한 사랑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기괴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기괴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6척의 장신에 사팔뜨기이며 거친 성격인 미스 아밀리아. 140센티미터가 될까말까한 키에 꼽추인 라이먼. 한때 아밀리아의 남편이었으며 잘생겼지만 사악한 성격의 소유자인 마빈 메시아. 그들의 기괴한 신체와 성격은 그러나 그들이 사랑을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한다. 아밀리아는 라이먼을 사랑하고 라이먼은 메시아를 사랑하고 메시아는 한때 아밀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나 버림받았다. 질서 있어 보이지만 어긋난 사랑, 어긋난 관계다. 어긋난 관계에 집착이 섞여들면 기괴한 관계를 낳는다. 사랑은 이미 기괴함을 넘어서는 기괴함을 그 속에 광포하게 숨

기고 있으므로.

“아주 이상하고 기이한 사람도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을 불지를 수 있다. (...) 목사가 타락한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다. 사랑 받는 사람은 배신자일 수도 있고 머리에 잔뜩 기름이 끼거나 고약한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 선한 사람이 폭력적이면서도 천한 사랑을 자극할 수 있고, 의미 없는 말만 지껄이는 미치광이도 누군가의 영혼 속에 부드럽고 순수한 목가를 깨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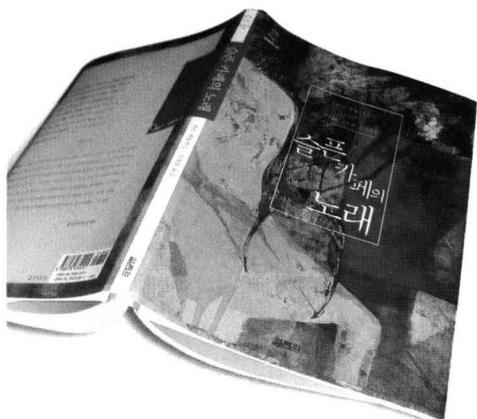
사랑은 아밀리아가 “부자이고 탐욕스러운 늙은 악한도 행동을 조심하고 누구를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가난한 사람들도 새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고 소금병 하나도 우아하고 겸손하게 집게” 만드는 카페의 여주인이 되게 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시간은 흐르고, 어떤 식으로든 사랑은 변한다. 변화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도 하므로.

메시아도 한때는 아밀리아를 향한 사랑으로 온순한 사람으로 살기도 했지만, 버림을 받는 순간 흉악한 사람으로 되돌아왔다. 라이먼은 메시아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교묘하게 숨기고 있던 음흉한 성격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변화한 사랑은 고통스럽게 끝나 슬픈 노래가 되거나 뼈저리게 고독한 시간이 된다. 소설의 결말에 메시아와 라이먼은 카페를 무참하게 부수어 버리고 아밀리아를 떠난다.

“그들은 자동 피아노를 부수어 버렸다. 그들은 카페의 테이블마다 무시무시한 욕을 새겨 놓았다. 그들은 뒤 뚜껑을 열면 폭포가 그려져 있는 시계를 찾아서 그것 역시 가져가 버렸다.”

3년 동안 매일 현관 앞에 앉아 라이먼을 기다리던 아밀리아는 폐쇄된 카페에 스스로를 격리시켜 버린다.

《슬픈 카페의 노래》의 작가 카슨 매컬러스(1917~1967)는 열여섯 살 때 앓은 열병으로 몇 번의 뇌졸중을 겪고 서른 살 무렵



《슬픈 카페의 노래》카슨 매컬러스 지음 | 장영희 옮김 | 열림원 | 148쪽 | 값 8,500원

부터는 발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다. 결혼생활도 그녀의 병력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작가이며 남편이었던 리브스 매컬러스와는 각자 동성의 애인을 사귀어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반복하는 등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을 보냈다. 작가의 삶은 어떤 식으로든 작품 속에 드러난다. 매컬러스 자신이 그랬듯, 그녀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거나 추방자다.

《슬픈 카페의 노래》를 번역한 장영희 교수는 이렇게 고백한다.

“아밀리아의 사랑이 너무 처절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그 버림받음이 너무 완벽해서 눈물이 났다. 너무 성스러운 책을 대하듯, 아밀리아의 사랑이 행여 내 번역으로 와전되거나 약화될까봐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마음이 쓰였다.”

《슬픈 카페의 노래》를 읽은 뒤, 나는 폭스펠즈 고속도로로 내려가 열두 명의 죄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듣고 싶어졌다. 직조기와 저녁도시락, 잠자리, 그리고 다시 직조기가 반복되는, 별다르지 않는 날들을 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살아오고 있다. 낭만적인 노래가 흐르고 묘약의 특별한 술을 빚어서 파는 카페조차도 내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는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 아밀리아와 라이먼과 메시아의 기괴한 사랑이 그들의 신체와 성격의 불구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신 외에는 그 누구도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감히 판단할 수 없고, 아무도 그 어떤 사랑의 마지막 판권이 될 수 없다”고 매컬러스는 사랑을 정의 내린다.

그런데 기괴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괴하다는 것은 오히려 “직조기와 저녁도시락, 잠자리, 그리고 다시 직조기가 반복되는 날들”이 반복되는, 첫덩이처럼 단단히 굳어서 변하지 않는 삶이 아닐까. 어디에도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사랑이 불러올 놀라운 변화를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삶. 사실 그보다 더한 공포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폭스펠즈의 고속도로로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열두 명의 죄수들 속에는 ‘언젠가는 죽을 운명’의 나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른다. 흑백으로 줄무늬가 들어간 죄수복을 입고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곡괭이로 진흙땅을 파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이 소설의 기괴한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콜라병에 담긴 백합 한 송이 가 내 방 어딘 가에서 독기 서린 향기를 풍기고 있을 것만 같다. ☞